장 려 상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 임상택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신중휘<고등학교 3학년 2반 담임 교사로 수학을 가르친다. 교직에 큰 사명감을 갖고 임용시험을 통과하여 보람을 느끼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13년차의 모범교사다. 8년 전 결혼을 하여 현재 7살 아들이 있으며, 아들의 학업을 위해 학군이 좋다고 소문난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김지원**<신중휘의 부인으로 국어 교사이다. 현재 3년째 휴직 중이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하다. 아들의 학업에 대해 관심이 각별하며, 최근 신중휘와 돈, 자녀 교육에 관한 의견 차이로 종종 다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원하영**<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이다. 성실하고 착하며 담임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학생이다. 성적은 학급에서 중상위권 수준이며, 자신의 꿈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부모님과 대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내적 갈등이 있다.>
원하영 어머니<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며, 학부모 사이에서 영향력이 크다. 학교에 자주 방문하며, 학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딸의 대학 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며,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시놉시스

【기】 2022년 9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로 학생들의 입시를 지도하는 신중휘에게는 가장 바쁜 달이다.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등으로 야근을 하던 어느 날 그에게 원하영 학생의 어머니의 전화가 온다. 원하영 학생의 어머니는 그에게 생활기록부 입력 및 추천서 작성에 대해 부정청탁을 의뢰한다. 신중휘는 조심스럽게 거절한다. 특히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원하영 어머니의 말에 더 큰 거부감을 느끼며, 중휘는 절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승】 신중휘의 아내인 김지원은 불편함 몸과 부족한 형편 속에서 힘겹게 아들을 키우고 있다. 거기에 대출과 자녀 교육 문제로 신중휘와 말다툼 하는 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중휘는 아들과 아내의 모습을 보며 원하영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게 되고, 갈등 하게 된다.
【전】 신중휘는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되고, 원하영 어머니와 모종의 대화를 나눈다. 원하영 어머니는 원하영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내용들을 외부 업체를 통해 받아와서 신중휘에게 넘기게 된다. 신중휘는 원하영 학생의 대입을 위한 생활기록부를 작업을 마무리 한다. 연이어 원하영 학생의 대입 추천서를 작성한다. 원하영 어머니와 대입 추천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결】 대학교 합격 발표일, 원하영 어머니는 자신의 청탁이 반영되었을 대학의 결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원하영은 해당 대학교에 불합격한다. 원하영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외부 업체에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며 허망해한다. 한편 어머니가 확인할 수 없었던 신중휘의 추천서에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불합격 사유가 “자기소개서 미제출”이었다. 원하영 학생은 우연히 어머니의 행동을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해당 대학 입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다. 원하영 학생은 훗날 자신의 꿈을 이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되었으며, 해당 학급의 급훈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라고 적힌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1. 학교 복도에서

시끌벅적한 3학년 교실 복도를 하영과 친구가 나란히 걸어가며 대화를 나눈다.
3학년 2반 교실임을 알려주는 팻말 앞에서 두 친구가 멈춰서 창 밖을 바라본다.

친구 : 하영아, 생활기록부는 잘 됐어?
하영 : 아니.. 뭐. 그냥 지금 와서 할 수 있는게 뭐 있겠어~

친구 : 에이.. 그래도 뭐 3학년 독서활동이나 특기사항 같은 것들은 더 채워넣을 수 있잖아.
하영 : (창 밖의 1학년 학생들을 바라보며) 지금 와서 해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1학년때부터 했어야지. 지금은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담임선생님께 추천서 잘 부탁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려구.

친구 : 그래? 그래도 넌 좋겠다. 담임쌤이 중휘쌤이라 정말 부럽다 야... 난 한숨만 나온다.. (한숨을 쉬며) 나도 3학년 2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영 : 응! 그건 그래. 나는 그걸로 올해 운을 다 쓴 것 같다 (웃음) 나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져

그 옆을 신중휘가 지나간다. 둘을 보며 미소지으며, 교실로 들어가며 손짓한다.

중휘 : 하영아 교실 들어오렴. 종례 해야지.
하영 : (밝게 미소지으며) 네! 선생님!

#2. 3학년 2반 교실에서

신중휘는 교탁에 손을 얹고 학생들을 둘러본다.

중휘 : 오늘 상담할 친구가 누구더라... 민재랑 서윤이, 수연이, 민찬이는 끝나고 선생님이랑 입시 관련해서 상담 좀 하자.
민재, 서윤, 수연 : 네.

민찬 : 선생님, 저 오늘 학원 때문에 남아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은데... 중휘 :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하자. 다들 고3이라 힘들텐데 다들 힘내고, 입시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인 거 알지? 언제든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방과 후에도 연락하고, 선생님은 너희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서 간절하니까. 순간 순간 얽매이지 말고 멀리 보고 다들 힘내보자.

교실 앞에는 급훈으로 멀리보라는 의미로 “See far”가 적혀있다.

#3. 학교 3학년 교무실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짐을 싸서 퇴근한다.
중휘는 짐을 쌀 생각 하지 않고, 학생자료를 살피고 상담자료를 뒤적인다.

동료교사 1 : 중휘쌤. 얼른 퇴근 안 하고 뭐해요?
중휘 : 아. 오늘 입시 관련해서 막바지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서...

동료교사 1 : 지금 와서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없는데 뭘.. 생기부도 거의 끝났고, 자소서야 지들이 쓰는 거고, 교사추천서는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추천서가 필요없는 대학교도 많아서 예전 같지도 않은데.. 적당히 하고 얼른 퇴근해요.
중휘 : 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들어가세요

동료교사 2 : 중휘쌤. 초과근무는 달았어요?
중휘 : 아니요. 아침에 깜빡해서 못 달았어요. 교감선생님께서 매일 늦게 남는다고 뭐라고 하셔서 잘 안 달게 되더라구요

동료교사 2 :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버리고... 쓸 때 없는 데 노력 낭비하지 말고 얼른 퇴근해. 나는 오늘 자기주도학습 감독이라, 아침에 초과근무 달았거든. 자습실 가 있을테니까 먼저 가게 되면 보안점검표는 내가 쓸테니까 놓아두고 가.
중휘 : 네네... 곧 마무리 하고 가겠습니다.

신중휘는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나간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서 상담을 한다.
열정적으로 상담을 하고, 시간은 저녁 8시를 넘긴다.

#4. 신중휘네 집

중휘는 퇴근하여 집에 도착한다.
아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아내인 김지원은 눈살을 찌푸린다.

아들 : (아빠에게 안기며) 아빠~
중휘 : 에구.. 우리 아들. 유치원은 잘 갔다왔어?

지원 : 뭘.. 이제야 들어와서 좋은 아빠인척 하고 있어
중휘 : 아.. 지금 대입 원서 시즌이라서....
지원 : (언성을 높이며) 무슨 그렇다고 지금 들어오냐고! 내가 휴직했지만 나도 고3 담임 안 해봤냐고!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 전에 퇴근했을 텐데 혼자 또 남아서 상담한다 뭐한다 애들 봐주고 돈도 안 되는 일 열심히 하다가 왔을 거 아니야!

중휘 : 아.. 애 앞에서 언성 좀 낮춰.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지원 :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남 좋은 일 열심히 해서 좋겠다. 정작 지 가족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루 하루 지내는데..

지원은 약통에서 류마티스 약을 꺼내 먹는다.
등과 손, 발의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중휘에게서 고개를 돌린다.

지원 : (퉁명스럽게) 다음 주에 아파트 대출 이자랑 도겸(아들)이 영어유치원 비용 나가는 거 알지?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돈 좀 되는 걸 좀 해... 상담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키워서 출제나 강연을 해보라고.. 그 좋으신 능력 엉뚱한데 쓰지 말고!
중휘 : (안절부절 못 하는 표정으로) ...

지원 : 얼른 씻고 도겸이랑 놀아주기나 해.

중휘는 씻고 나와서 도겸이랑 방에서 같이 장난감 블록 놀이를 하며 놀아준다.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들린다. 중휘는 핸드폰을 꺼내 내용을 확인한다. 핸드폰에는 오늘 상담하지 못 하고 학원을 갔던 민찬이가 보낸 메시지가 보인다.

민찬의 메시지 : 선생님. 진학 관련해서 지금 상담 가능 할까요?

중휘는 생각한다. 클릭해서 메시지를 볼지 무시할지 갈등한다.

중휘의 생각 : 얼마나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겠어. 나에게는 그냥 보고 답변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이 학생에게는 인생이 걸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잖아. 늦은 시간이고 업무시간도 아니지만, 무시하지 말고 잘 대답해 줘야겠어.

중휘는 핸드폰을 보며 민찬의 메시지 길게 답변을 해 나간다.

도겸 : 아빠!... 아빠..
중휘 : (핸드폰을 계속 바라보며) 응 도겸아 잠깐만...

도겸 : (서운한 표정을 짓는다.)

도겸은 아빠인 중휘 곁을 떠나서 혼자 방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울먹이며 혼자 놀기 시작한다. 지원은 하던 집안일을 마무리 짓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다. 그리고 상황을 짐작하고 중휘에게 다가가 말을 한다.

지원 : 아주 참교사 납셨어. 참교사야. 남의 자식 좋은 일만 허구헌 날 하지 말고 지 자식 좀 챙기라고. 도겸이가 오늘 아빠랑 놀 생각에 얼마나 기대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우리 가족, 도겸이 아빠가 맞아? 뭐가 우선인거야?
중휘 : 그게 아니라 ...

지원 : 도겸이가 유치원에서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이나 있기나 해?
중휘 : 내가 왜 관심이 없겠어...

지원 :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마치자 마자 지원은 바닥에 도겸이가 유치원에 그린 그림을 던져놓고 간다.
도겸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이 바닥에 놓여 있다.

중휘는 그림을 바라본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도겸이는 집에, 아빠는 학교에 있다.

#5. 교실, 그리고 복도

조회를 하는 중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있다.
조회를 마치고 복도에서 하영과 친구가 만나 대화를 나눈다.

하영 : (걱정하는 말투로) 우리 담임쌤 어제 너무 무리하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친구 : 우리 담임쌤은 아주 얼굴에 반짝 반짝 윤기가 나던데?
하영 : (쓴 웃음 지으며) 야야.. 쉿.. 저기 지나가신다..

친구의 담임선생님이 지나간다.
하영은 친구의 머리를 누르면서 강제로 인사를 시키고 본인도 인사를 한다.

친구, 하영 : (멋쩍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친구 담임교사 : 어~ 그래.

하영은 친구의 담임교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을 이어간다.

하영 : 담임쌤께서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아니까... 감사하면서도... 안쓰럽고 그래
친구 : 참... 복에 겨운 소리 하지마. 그래도 중휘쌤 맡은 반 아이들은 다 대학들 잘 간걸로 유명하잖아. (담임교사가 지나간 길을 힐끗 돌아도며) 담임 누구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이 거지 같은 세상이라니

하영 : (어색하게 웃으며) 학생이 잘 해서 간거겠지.. 잘 하는 학생이면 어디에서든 드러날 거 아니야... 난 그너저나 우리 담임쌤이 적게 일 하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

친구 : 교사라면 그건 포기해야되는 거 아니야? 직업을 바꿔야지... 아니면 뭐 그거... 촌지? 그런거 받으면 가능은 하겠다 야~. 아니지... 예전엔 그런 것도 많았다던데 요즘엔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그것도 없다며.. 그냥 교사라면 맘 접고 포기해야지. 너도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많이 일 하고 적게 버는 직업이라면 정말 딱이겠다.

하영 : 글쎄... (그 순간 지나가는 중휘를 보며) 난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어.

#6. 학교. 퇴근 길

중휘는 전날 도겸이와 지원이와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서둘러 퇴근한다.
아내 지원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낸다.

중휘의 메시지 : 오늘은 일찍 퇴근할게.
지원의 메시지 : 응. 도겸이도 잔뜩 기대하고 있어

중휘가 퇴근하는 길, 중휘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온다.
핸드폰에는 원하영 어머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중휘는 핸드폰을 받는다.

중휘 : 안녕하세요 하영이 어머님
하영 어머니 :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중휘 : 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하영 어머니 : 아. 다름이 아니라, 찾아뵙고 말씀 드릴 내용이 있어서 연락 드렸거든요

중휘 : 아.. 네.. 혹시 전화로는 힘든 내용일까요? 제가 지금 퇴근 중이어서
하영 어머니 :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급한 일이어서요. 장소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중휘 : (고민하는 표정으로) 그러면 제가 퇴근하는 길목에 있는 OO카페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하영 어머니 : 네 지금 가겠습니다.

#7. OO카페

중휘 : (단호한 표정으로) 저는 못 하겠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중휘 : 그럴 수 없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과 재작년에 S대 합격한 그 친구들도 다 이렇게 갔다고 해요.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표현을 달리 하는 정도일 뿐이잖아요. 선생님도 어떻게 쓸지 고민하실 것 없어서 훨씬 편하실 거구요.

테이블 위에는 원하영 어머니가 가져온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거짓 활동과 특기사항 문구들이 잔뜩 적혀있다.

중휘 : (무표정한 표정으로) ....
원하영 어머니 : 그리고 선생님 아들 영어 유치원 다니죠?

중휘 : (놀라는 얼굴로) 네?

원하영 어머니 : 제 지인이 거기 관련된 일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선생님 자녀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거기 비용이 한 달에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또 여기까지 학군 보며 이사해오시느라 대출금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오죽 부담이시겠어요? 약소하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하영이 졸업하고 나서 드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때는 담임과 제자 관계가 아니니까 김영란법인지 뭔지도 전혀 상관 없다던데요?

중휘 : (도겸이와 지원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
원하영 어머니 : 지금 대답이 어려우시면 잘 고민해 보세요. 일단 자료는 이렇게 드릴게요.

카페 테이블 위에는 독서활동,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과목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사추천서 라고 라벨이 붙어있는 화일철이 올려져 있다. 중휘는 힐끔 쳐다본다.

원하영 어머니 : 생각이 많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중휘는 생각에 잠긴다. 중휘는 손을 뻗어 교사추천서라고 적힌 화일철을 열어 본다.
그 안에는 “추천인 : 신중휘”, “추천학생 : 원하영” 이라고 적혀 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문구로 빼곡하게 학생에 대해 추천하는 내용들이 적혀있다.

중휘는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

카페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앞선 대화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중휘는 테이블 위에 파일철을 버려두고 갈까 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어서 차마 두고 가지 못 하고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카페를 나온다.

#8. 대학입시 컨설팅 업체

어느 사무실에서 한 남자와 원하영 어머니가 대화를 나눈다.

원하영 어머니 : 전달은 잘 했는데,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남자 : 제가 보기엔 다 넘어온 것 같아요. 진짜 거부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남자 : 그럼요. 요즘 세상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르는 엄마들은 학교랑 자식만 믿고 마음 고생만 하는 거지요. 이런 입시가 수년간 지속되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겠어요. 그 안에서 저희는 살아남았고, 이런 실적들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만 믿으세요.

사무실 벽면에는 수 많은 합격생들의 이름과 대학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원하영 어머니는 특히 S대학교라고 적혀있는 많은 합격생들의 이름들에 눈이 간다.

원하영 어머니 : (계속 벽면의 합격생 정보들을 쳐다보면서) 그럴까요?

남자 : (음흉한 웃음을 애써 감추며) 그나저나 가지고 오셨나요?

원하영 어머니는 두툼한 봉투를 남자에게 건넨다. 남자는 간사하게 미소를 짓는다.

남자 : (봉투를 열어서 안의 돈을 눈을 살피며) 일단 이건 진행금이구요. 추후에 그 선생님 추천서 입력이 완료되면 추가 금액 있는 것과 합격 후에도 추가금액 있는 것 다 아시죠?
원하영 어머니 : 네.. 합격만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9 하영이네 집

원하영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다.
하영이의 집에서 하영이는 엄마와 대화를 나눈다.

하영 어머니 : 하영아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다고 했지? 학과는 어디 가고 싶고?
하영 : 응. 나는 사범대 가고 싶어. 대학교는 크게 상관없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보다는 임용고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성적에 맞는 대학교 사회교육과로 생각하고 있어. 생기부도 1학년 때부터 그 쪽이랑 연관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그쪽 쓰면 될 것 같아.

하영 어머니 :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요즘 교사가 별로라더라.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또 나중에 공립학교 교사는 합격은 어려운데 삶의 질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 그냥 행정학과, 경영학과 이런데 가는 게 어때?
하영 : 글쎄.. 나는 그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영 어머니 : 너네 사촌 언니 시영이 기억하지? 이번에 고시 합격했다더라. 너가 어릴 적에 시영이 보다 훨씬 더 공부는 잘했잖아. 여기가 학군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치, 다른 곳 가면 최상위권이야. 행정학과나 경영학과 가서 공부해보다가 잘 안되면 그때가서 교사로 빠져도 되잖니?
하영 : (난색을 표하며) 글쎄....

하영 어머니 : 내말 들어봐.. 엄마 소원이다... 수시원서는 니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써주면 안 되겠니? 자기소개서도 내가 컨설팅 받아서 가져올테니까 그걸로 쓰고... 수시 접수 이후에 정시 접수는 너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안 할게.
하영 : (당황한 표정) ....

하영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지 못 했다.

#10. 신중휘의 집

신중휘는 퇴근길 예상치 못 하게 원하영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상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된다. 중휘는 현관문을 열기 전 시계를 본다. 어제 보다 더 늦은 저녁 9시를 넘긴 시각.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 더 늦어버린 상황에 중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현관 문을 연다.
지원은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휘를 본다. 지원은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도겸은 기다리다 지쳐서 방에서 자고 있다.
중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못 하고 조용히 씻으러 간다. 걸어가는 중휘의 뒤에 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원 : 이제 기대를 안 할게. 가족을 위한 시간도, 돈도 다... 당신에게 기대할 게 없어.
중휘 : ....

#11. 신중휘의 집. 서재

중휘는 방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다. 원하영 어머니의 말들이 떠오른다.

중휘의 생각 : 내가 학생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게 참 세상을 위하는 일이고 참으로 이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기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내 가족에게 너무나 못났고 못된 행동이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다 생각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휘는 고민과 갈등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다 중휘는 핸드폰을 꺼내고 원하영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중휘의 메시지 : 어머님. 자료 잘 봤습니다. 보내주신 대로 잘 적어드리겠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메시지 : 잘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휘는 원하영 어머니에게 받은 자료를 꺼내며, 원격업무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영 학생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력하기 시작한다. 특별히 고민하며 글을 적을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치면 되었기에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입력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중휘는 생각했다.

중휘의 생각 : 이렇게 편한 것을...

#12, 교무실.

퇴근시간 누구보다 빨리 짐을 챙겨서 중휘는 퇴근을 나선다.

동료교사 1 : 이야.. 벌써 퇴근해? 중휘쌤 많이 변했네?
중휘 : (웃으며) 네.. 저도 워라벨의 균형을 맞춰보려구요.

동료교사 1 : 그래. 그 동안 참 너무 혹사한 것 같았어. 아들이 좋아하겠어
중휘 : 네. 부장님.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13. 신중휘 집

신중휘는 일찍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다.
김지원은 이전과 달리 웃으며 반갑게 맞이한다.

지원 : (미소지으며) 일찍 들어왔네?
도겸 : (중휘에게 안기며) 아빠~~~~!

중휘는 도겸을 안아주며 미소 짓는다.

중휘는 아들 도겸이와 즐겁게 놀아준다.

핸드폰 카카오톡 알림이 온다. 학생의 상담 희망 메시지였다. 중휘는 핸드폰을 슬쩍 보며 학생의 이름임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눌러보지 않고 아들이랑 놀아준다.

그리고 생각한다.

중휘의 생각 : 이렇게 편한 것을...

#14. 교실

교탁 앞에 서서 중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 한다.

중휘 : 다음 주부터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인 것 알지? 선생님 첨삭해줄 테니까 자기소개서 작성 완료되면 제출하는 것 잊지 마 얘들아. 늦게 제출하면 많이 못 봐주니까 미리미리 제출하고,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학생들도 미리미리 알려 주렴. 밤 늦게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는 건 그때 그때 봐줄 수 없으니까 학교에 있을 때 제출하기! 이상 종례 끝!

#15. 복도

복도에서 원하영과 친구가 대화를 나눈다.

친구 : 너희 담임쌤 요즘 표정이 좋아보이더라.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피곤해 보였는데
하영 : 응 맞아.. 근데 조금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방과후에는 상담이나 자소서 첨삭 안 해주신다고 하고... 밤 늦게 카톡 하지 말라고 하시고...

친구 : 그게 정상이지... 그 동안 너무 비정상적이셨잖아. 난 지금이 좋아보이더라, 그나마 이제야 보통의 사람같은 느낌이랄까? 그 전에는 뭔가 성인군자 같고...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 그나저나 우리 담임쌤은 자소서 첨삭 해준다는 이야기도 없어... 젠장...

하영 : 아 맞다. 나 자소서 써온 것 있는데 깜빡할 뻔 했네. 첨삭 드리려면 얼른 드려야겠어
친구 : (웃으며) 내 덕인 줄 알아라.

#16. 신중휘의 집

중휘는 학교에서 가지고 온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훑어 본다.
첨삭을 해주며, 수정해야할 부분들을 표시한다.

그러던 중 하영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된다.
중휘는 한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저는 담임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중휘는 순간 얼굴을 붉힌다. 그러면서도 중휘는 하영의 어머니가 보내준 추천서를 보며 그대로 추천서를 작성한다.

작성을 완료하고 추천서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에는 추천서 작성 완료 라는 문구와 마감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보인다.

중휘의 생각 :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17. OO카페

카페에서 원하영 어머니와 중휘가 대화를 나눈다.

원하영 어머니 : 선생님 추천서는 잘 쓰셨나요?
중휘 : 네 어머님. 어머님이 보내주신 추천서 잘 봤구요. 정말 잘 썼습니다.

중휘는 원하영 어머니가 준 자료 그대로 썼지만, 차마 그대로 썼다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 너무 싫어서 잘 썼다는 말로 대신 말했다.

원하영 어머니 :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 유치원쪽에 제가 잘 말을 해놓았구요. 연말까지 따로 비용 나가시는 것 없을 겁니다.
중휘 : (당황하는 표정으로) 네? 아니.. 그건

원하영 어머니 : 걱정하지 마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 서류를 갖춰놓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약소한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하시구요. 합격하고 나면 졸업 이후에 제대로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중휘 : (멍한 표정으로) .,,

원하영 어머니 : 저는 얼른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18. 원하영 집

원하영 어머니는 진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S대학 교사 추천서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화면에는 “추천서 : 입력완료” 라고 적혀 있다.
원하영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19. 신중휘 집

김지원 :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야. 영어유치원에서 다음달부터 돈 안 내도 된다고 하네? 자기가 뭐 했다고 하는데...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며 더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주네?
중휘 : (당황한 표정) 으응? 그래?

중휘는 얼른 자리를 피해 서재로 들어간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진학 추천서 입력 사이트에 입력된 추천서를 확인한다.
추천서 수정 마감 2시간 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중휘의 머릿 속에는
“저는 담임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떠오른다.

중휘의 결심에 찬 얼굴 표정을 짓는다.
중휘는 키보드 자판을 몇 차례 두드리고는 후련한 표정을 짓는다.

#20. 교실

교실에 노트북을 들고온 중휘는 하영을 앞으로 부른다. 하영이가 수시 원서를 접수한 6개 대학교 중 5개 대학교에는 이미 불합격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5개의 대학은 다 하영이가 원하는 사회교육과를 지원한 대학이었다. 다행히 그 중 4개 대학은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대학이 일부 있어서 최종까지는 기다려봐야 했다.

마지막 1개의 대학은 하영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S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중휘 : 하영아. 오늘 S대학교 합격 통지날인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볼래?
하영 : 아니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고 싶어요

중휘 : (노트북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며) 그래. 같이 한 번 보자..

노트북 화면에는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등장한다. 예비번호 조차 없이 불합격이라는 글자에 중휘와 하영은 둘 다 예상이라도 한 듯 당황하지 않았다.

중휘 : (하영의 표정을 살피며) 에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생기부는 사범대 쪽으로 잡혀있는데, 경영학과로 써서 그런 걸까?
하영 : (중휘의 표정을 살피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중휘는 속으로 생각한다.
중휘의 생각 : 미안하다. 하영아..

중휘 : 나는 너가 사범대에 합격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하영 : 저두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거에요. (미소를 짓는다.)

#21. 원하영 집

원하영 어머니는 컴퓨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 화면에는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등장한다. 원하영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러 차례 다시 입력해 보고 확인한다. 허망한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 화가 난 표정을 짓는다. 컨설팅 받은 업체에 전화를 해보지만 받질 않는다. 원하영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낸다.

#22. (회상-과거) 원하영

원하영은 집에서 우연히 어머니가 외부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가져온 서류를 목격한다. 그곳에는 자기가 실제 한 활동이 아닌 자료들과 읽지도 않은 책들에 대한 독서기록 등이 가득했다.
그리고 추천서라는 라벨의 파일철 안에는 미리 적혀 있는 추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추천인에 담임선생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한다.

하영 :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영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영의 생각 : 내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마도... 선생님도 모두 큰 상처를 더 받게 되겠지?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니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22 (회상-과거) 신중휘

중휘의 머릿 속에서
"저는 담임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던 그날 밤. 추천서 수정 제출 마감 2시간 전, 중휘는 추천서를 수정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학생을 추천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항목 아래에 빈 공란에는 앞서 적어놓은 추천서 내용들이 빼곡이 차 있었다.

중휘는 그 내용을 다 지우고는 한 문장을 입력했다.

"이 학생을 귀 대학교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후련한 듯한 표정으로 중휘는 생각했다.
중휘의 생각 : 이제 영어 유치원에 전화하는 일만 남았구나.

#23 (회상-과거) 대학교 입학처

대학교 입학처에서 평가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평가관 1 : 이 학생 조금 특이한데?
평가관 2 : 어떤 게 특이하다는 거죠?

평가관 1 : 다들 와서 이것 좀 한번 보시겠어요?
평가관 2, 3 : (놀라며) 어허...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원하영 학생의 대학 지원 서류였다.
평가관 1 : 어쩔 수 없겠죠?
평가관 2 :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평가관 3 : 원칙대로 해야겠죠. 추천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니 그렇다 쳐도..

그리고는 원하영 학생의 결과를 입력한다.

지원자 : 원하영 (불합격)
불합격 사유 : 자기소개서 미제출

#24. 졸업 후, 스터디 카페에서

원하영은 스터디 카페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원하영의 독백 : 나의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읽지 않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생활기록부를 사용해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 다음 해에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정시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졸업 직후 후배들로부터 신중휘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더 놀랐던 것은 중휘선생님께서 대학 입학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신다는 소식이었다. 주변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선생님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선생님의 마음을 나는 알 것 같았다. 아마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다. 나 또한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지금 부끄럽다. 그 죄를 받는 거라 생각한다. 1년 더 공부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도 노력해야지. 나는 여전히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25.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된 원하영은 교탁 학생들에게 말한다.

하영 : 셀프 생기부는 절대 안 된다. 가져오기만 해봐라. 이 학생 추천하지 않는다고 추천서에 쓸 거니까. 부모님께도 반드시 그렇게 전해라. 알겠니? (미소 짓는다)"

교실의 급훈이 눈에 띈다.
급훈 :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모든 학생들이 힘차게 "네"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하영의 말에 대답한다.
학생 :네! (당당한 목소리로)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이죠 (미소 지으며)

하영은 학생의 말에 미소 지으며 칠판 위에 걸려 있는 급훈을 돌아본다.